

“기도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총무원장 스님, 국내 3명뿐인
난치병 환자 위해 염주 풀어...

담심리청소년독서실 방문해
더나눔행사서 모은 성금 전달

“세립이가 한 살 때 호흡기 문제로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을 소개해줘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어머니 쪽 유전자 영향이라고 해요. 죄책감도 많이 들고, 우울증까지 와서 힘들었는데 인근 절에 다니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국내 3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난치병 비스코트 올드리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최세립(14세) 군의 어머니 조상희 씨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염주를 풀었다. “제가 기도하는 염주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총무원장 스님의 깜짝 선물을 받아낸 조상희 씨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9일 서울 담심리청소년독서실(시설장 이봉해)을 찾았다. 취임 이후 지난 8년간 매달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스님은 이날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지원금 전달을 겸해 청소년독서실을 찾았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최세립 군에게 치료비 8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총 9400만원을 국내 난치병 환자 18명, 라오스 아동 5명에게 전달했다. 이 기금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실시한 ‘더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됐다.

이날 치료비를 전달받은 최세립 군이 앓고 있는 비스코트 올드리치 증후군은 면역체계 결함과 혈소판 감소를 일으켜, 작은 감염에도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다행히 2년 전 수술을 받았으나,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 형, 여동생 등 4남매로 어머니 조 씨가 생계와 간호를 책임지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세립 군이 빨리 완치돼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조상희 씨를 격려하고, 청소년독서실에 팔빙수 재료와 템플스테이 체험권 20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비나눔 전달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등이 동행했다.

안직수 기자 isahn@ibulgyo.com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ibulgyo)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9일 서울 담심리청소년독서실을 찾아 희귀난치병 환자인 최세립 군의 어머니를 격려하며 평소에도 기도하던 염주를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전달식 없어 더 빛나는 성불사 성역화불사 동참

“뜻있는 일에 쓰라” 가르침 따라
사설사암 임에도 벌써 두 번째...

조계사를 중심으로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서울의 한 작은 사찰에서 거액을 쾌척해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 성불사 주지 보우스님은 최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성역화 불사기금으로 1400만원을 전달했다. 공찰도 아닌 사설사암에서 별도의 전달식도 갖지 않고 계좌이체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성불사가 성역화 불사에 참여하게 된 계

기는, 무소유의 진리를 몸소 실천했던 은사 해은스님의 2주기 추모제를 지낸 이후 조의금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뜻 깊은 일에 회향하고자 참여하게 됐다. 주지 보우스님은 “종단 스님이라면 성역화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성역화 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이후 도량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환희심이 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그 위상에 걸맞은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성불사는 신도들이 조계종 신도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순례하는 법회도 진행하고 있다.

성불사의 뜻 깊은 후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례 후 만약 여유가 있으면 뜻 있

는 일에 써 달라”는 은사 스님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 4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보우스님에 따르면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장을 지낸 해은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가람수호, 이 두 마디로 설명이 될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했다. 운문사 사리암을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불사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편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불사가 마무리되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조계사 대웅전 등을 제외한 견지동 일대 나머지 지역은 현재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 수도의 중심 문화벨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단독 입후보 원경스님
마곡사 주지후보 선출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28대 주지 후보에 현 주지 원경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6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경내 관음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원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로써 원경스님은 오는 9월2일부터 2021년 9월1일까지 마곡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특히 원경스님은 1998년 종단 개혁 이후 마곡사 주지 선거를 위한 산중총회에서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됐다.

원경스님은 인사말에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교구 스님들이 한 번 더 소임을 맡겨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도들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구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와 말사의

행정도 본사에서 도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혔다.

원경스님은 진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곡사 공주포교당·천안 성불사 주지, 13~15대 중앙총회의원,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마곡사 주지와 사회복지법인 마곡 이사장, 대전지방경찰청 경승지단장, 대전충남파라미타와 세종파라미타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이시영 충청지사장

팔빙수 먹으며
시원한 여름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아동센터 33곳에 ‘빙수세트’

불벌터위와 열대야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아름다운동행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시원한 여름선물을 전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핫(HOT)한 여름 쿨(COOL)한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빙삭기 1대와 빙수재료를 지원했다. ‘HOT한 여름 COOL한 나눔’ 캠페인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저소득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등 80여 가구에 쿨매트와 여름이불 세트를 전달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 아동보호시설 등에 빙수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서울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빙삭기 1대와 빙수재료를 지원했다. 사진은 센터 청소년들이 팔빙수를 만드는 모습. 신재호 기자

동행은 올해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 등 33개 기관에 약 1000만원 상당의 빙삭기와 빙수 재료를 전달했다.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봉은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지난 2009년 문을 열었다. 지역사회에 연계해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를 찾은 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과 직원, 봉사자들은 즉석에서 얼음을 갈아 팔빙수를 만들어 센터 청소년들에게 전했다. 센터에 모인 10여 명의 청소년들은 동행에서 지원해 준 시원한 팔빙수를 먹으며 잠시 더위를 식혔다. 센터에 다니는 노 모(14세) 군은 “오늘도 낮에 학교에서 팔빙수를 먹었는데 센터에 와서 스님이 준 팔빙수를 먹으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여름을 맞아 동행에서 준비한 팔빙수를 맛있게 먹고 잘 지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www.1027beopnan.kr

제1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7.7.17월 - 2017.9.1금



1980년 10월 27일 일어난 10·27법난의 진실을 알리고, 문예작품을 통해 10·27법난피해에 대한 치유와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를 널리 확산하고자 제1회 10·27법난에 관한 문예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수필, 기행문, 공트, 주장글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응모기간 : ~ 9.1(금)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모진 참고목록

- △MBC 10·27법난 30주년 특집 다큐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2010년 10월27일 방영)
- △10·27법난 자료집(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위원회)
- △10·27법난의 진실(유음오 저, 화남출판사)
-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1027beopnan.kr

시상 : 총 24명 이내 선정, 상금 총 270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대상	3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6편(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12편(부문별 각 4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접수방법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9)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5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주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시 시·산문은 한글파일, 만화는 이미지 파일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함이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음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 만화의 경우 원본 접수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